

기록도 '풍성' 관중도 '풍성'



이종범 통산 500도루 눈앞

양현종 11년만에 방어율 1점대

김현수 사상 두번째 4할타 도전

풍성한 기록 행진으로 2009프로야구의 재미가 더해지고 있다. 투고타자가 두드러진 시즌 '88등이' 김현수의 불방망이에서부터 '불혹의 투혼' 이종범의 질주까지 대기록을 향한 타자들의 도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4할 타자의 탄생 여부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박인천(당시 MBC)이 0.412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한 뒤 27년 동안 4할 타자는 탄생하지 못했다.

1994년 2년차의 이종범이 196개의 안타를 터트리며 4할 고지에 도전했지만 타율은 0.393에서 멈춰섰다.

'야구천재'도 이루지 못한 '꿈의 4할'을 향해 페타지니(LG)와 김현수(두산)가 방망이를 조준하고 있다. 기계같은 타격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페타지니와 김현수는 26일 현재 0.418과 0.413의 타율로 고공행진중이다.

쏟아지는 안타수도 가공할 만하다.

42경기에서 67개, 경기당 평균 1.6개의 안타를 터트리고 있는 SK의 정근우는 200안타를 향해 돌진 중이다. 정규시즌 133경기를 모두 뛴다고 가정하면 213개의 안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현수(62개), 페타지니(59개)도 200안타를 향한 만만치 않은 후보군이다.

특히 터지는 민투홈런도 새 기록을 쓸 전망이다.

◀ 이종범

소속:KIA

생년월일:1970.8.15

포지션:외야수

성적:통산도루 499개

마구마구
야구프로모션

울 시

증 친정팀 KIA로 돌아

온 김상현은 4월 26일 시즌 1

호이자 프로데뷔 첫 만루홈런을

기록한 뒤 2, 3호 홈런을 모두 만루포로

장식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시즌 13개

의 만루 홈런이 터져나오면서 지난 2005년 작

성된 39개를 깨고 있다.

'바람의 아들' KIA 이종범도 대기록을 향한 눈부신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종범은 연대 2번째인 500도루에 단 하나 만을 넘겨두

고 있지만 기록 달성을 며칠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499번째 도루를 성공시켰던 이종범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추모의 뜻으로 장례기간 동안 뛰지 않

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이

종범은 500도루의 대기록에 이어 2천 500루타(26일 현재·2천

492루타), 1천득점(〃·994득점)을 위한 질주에 속도를 낼 예정

이다.

타자들의 팽공세에도 불구하고 꽃꽂이 기록을 써나가는 투수

도 있다. 올 시즌 9경기에 등판한 KIA의 '좌완 특급' 양현종은 1.

94의 방어율로 1998년 정명원(당시 현대·1.86) 이후 맥이 끊긴

1점대 투수에 도전하고 있다.

양현종은 26일 SK전 선발로 나서 6회3분의 1이닝동안 3점을 내주며 패전 투수가 됐지만 자책점을 1점으로 둑

으며 방어율을 1점대로 끌어내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



▶ 양현종

소속:KIA

생년월일:1988.3.1

포지션:투수

성적:평균자책 1.94

◀ 김현수

소속:두산

생년월일:1988.1.12

포지션:외야수

성적:타율 0.413

벌써?... 2,000,000명

프로야구 13년만에 관중 최단기간 돌파 눈앞

그라운드 관중 몰이에 KIA 타이거즈가 앞장선다.

프로야구가 1996년 이후 13년 만에 최소 경기 2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6일 현재 누적 관중수는 194만 8천675명으로 200만 관중에 5만1천343명이 남았다. 전체 532경기 중 33%에 달하는 174경기를 끝낸 26일을 기준으로 경기당 평균관중이 1만1천 199명인 것을 감안하면 28일 2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173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돌파했던 지난 1996년 이후 최소 경기다. 지난해에는 200만 관중을 넘는 데 185경기가 걸렸다.

올 시즌 가파른 관중증가의 중심에는 KIA가 있다.

KIA는 올 시즌 32%의 관중 증가율로 한화(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만원 기록은 KIA가 한화를 압도한다. 평균 관중이 8천8백62명에 달하고 있는 KIA는 군산 홈경기 2경기를 포함해 총 9차례 매진 사례를 장식했다. 팀 최다 기록은 지난 1995년에 세워졌던 9차례로 이를 훨씬 넘어서 태세다.

다른 구장의 경우에는 대전 7회(청주 3회 포함), 대구 5회, 사직 4회, 잠실 2회, 목동 2회, 문학 1회의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구 구단' KIA는 원정길에도 구름관중을 물고 다니고 있다. 특히 문학·목동·잠실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원정 응원석은 KIA

팬들의 노란 물결로 가득 찬다.

이번 주말에는 잠실에서 LG와의 '신바람' 맞대결이 예정되면서 팬들 사이에 '명당' 잡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예매사이트 티켓링크에서는 4천400여석에 달하는 3루 지정석(레드존, 블루존, 로티보이존)의 30, 31일 입장권이 이미 매진됐다.

평일인 29일 경기의 3루 지정석 좌석도 300여석밖에 남지 않는 등 예매경쟁이 전개되면서, 구단 홈페이지 등 야구 관련 게시판에는 지정석 표를 구하려는 팬들의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200만을 넘어 500만 관중을 향한 프로야구 흥행의 중심에 선 KIA 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



내가 받을게~

27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열린 'SWATCH FIVB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2009 서울 오픈' 아사오 미와, 니시보리 디케미(일본) 대 루이즈 보든, 앤리스 로캠퍼(호주)의 경기에서 아사오가 호주의 서브를 받아내고 있다.

'체육 꿈나무 대제전' 막 오른다

전국 소년체전 30일 여수 등 전남 17개 시군서 개막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인 제38회 전국소년체

육대회가 30일 여수시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 1천15명(선수 721명, 임원 294명), 전남 1천178명(선수 814명, 임원 364명)을 포함,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만6천9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수영·축구·야구 등 33개 종목(경식종목 30개, 시범종목 3개)에 걸쳐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서 소프트볼·요트·트라이애슬론은 시범종목으로 열린다. 트라이애슬론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1회 하계청소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서 이번에 시범종목에 포함됐다.

29개 종목에 참가하는 광주는 레슬링·양

궁·체조·태권도 등에서 선전을 기대하면서

금메달 22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7개를 예상하고 있다.

전종목에 참가하는 전남은 육상·역도·볼링·태권도·복싱 등 기록·투기종목의 전력 상승으로 금메달 30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4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개회식은 30일 오전 10시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16개 시·도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대회 개최지 전남은 이번 소년체전을 전남의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 체전·질약체전·배려체전'을 강조했다.

친환경 체전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일밥·상

진 꽂밥 등을 장식했으며 개회식 때 갤비·소

스포츠미술대회와 백일장도 열린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연합뉴스